현불뉴스

병자년 동안거 22일 해제

불기 2540년 병자년 동안거가 지난 22일 영축총림선원을 비롯한 전국의 선원에서 일제히 해제됐다.

이날 조계종정 월하스님을 비롯한 총림방장스님 및 선원 조실스님들은 해제법어를 통해 각고의 수행정진을 거듭 독려했다. 이번 동안거에는 5대 총림선원을 비롯 전국 64개 선원에서 1천8백여명의 납자들이 안거에 참여했다.

독도서 3·1절 종교행사

불교 천주교 기독교 3개 종교의 3·1절 기념행사가 독도 앞바다에서 열린다.

극일운동시민연합(의장 황백현)은 오는 28일부터 1박2일동안 독도 앞바다에서 '제 1회 독도 3·1절 기념문화제'를 개최한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독도문화제에서는 각 종교별 기념의식이 거행된다. 또 결혼식, 사진촬영대회, 울릉도 밤낚시 및 독도낚시 시범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황백현의장은 "종교행사를 통해 조국의 평화와 지주를 기원하고, 독도가 우리땅임을 천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달 15일 조계종 행자교육

조계종 제12기 행자교육이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3주 동안 직지사에서 실시된다. 이번 행자교육은 96년 10월 15일 이전 입산행자 3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자는 10일부터 28일까지 각 교구본사와 교육원(직할교구)에 소정의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육원은 내년 행자교육부터 교육기간을 1주일 연장해 예식과 습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룡사 신교대법당 낙성

육군 제 25사단 군법당 비룡사(주지 법사 심성렬)는 지난 18일 신교대법당 낙성식을 봉행했다.

2천여명의 불자장병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교대법당은 65평 조립식건물로 경남 기원정사(주지 혜원)의 후원으로 완공됐다.

민족돕기본부 '통신방' 개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는 최근 본부 활동소식과 관련단체 동향, 북한식량관련소식을 알리기 위해 나우누리에 통신방을 개설했다. ID는 '우리민족' 사용방법은 나우누리에서 GO KBSM을 누르고 곧바로 들어가는 방법과 사회단체 코너에 들어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방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다.

통신방 개설에 이어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통신내용 등 본부 및 북한 소식등을 전달하는 '주간뉴스레터'를 발간, 전국 각지에 무료보급하고 있다. 신청 (02)3672-5373

신도시 포교 '발등의 불'

일산경우 사찰 10여곳에 교회는 3백여곳

신도시가 기독교화되고 있다. 일산 분당 중동 등 수백만 이상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사는 수도권 5대 신도시가 기독교세에 잠식당하고 있어 신도시포교에 비상이 걸렸다. 일산의 경우 사찰은 10여곳이지만 교회는 30배가 넘는 3백여곳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분당은 10여곳, 중동은 2곳, 평촌은 2곳인데 비해 교회의 수는 약 1백~3백여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일산에 연건평 2천8백여평에 법당, 지장전, 승방, 청소년회관 등을 갖추게 될 통도사 포교당 여래사가 기공돼 눈길을 끌고 있다. 통도사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신도시불사에 진력, 분당 연화사, 평촌 보림사 등 11개의 포교당을 건립했다. 이밖에도 금년에는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분당신도시에 6천2백여평부지에 전통양식의 사찰 기공식을, 서울 약사사(주지 현문)는 일산에 포교당을 건립하고 있어 실추된 신도시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95년 일산에 원각사 포교당을 개원한 명덕스님은 "신도시는 곧 기독교 천국이라 할만큼 교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신도시 포교의 성공이 한국불교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수도권 5대 신도시 포교가 위기상황에 놓인 것은 종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한것이 가장 큰 요인. 종교부지는 신도시 계획단계에 공고하고 신청을 불하(拂下)한다. 하지만 교계는 재정적인 이유등으로 그동안 무관심해 왔다.

80년대초 안산 신도시가 조성될 당시 종교부지로 53곳이 지정됐으나 52곳이 교회로 1곳이 원불교로 불하됐다. 이로인해 안산 신도시는 기독교세가 판을 치고 있다. 안산 신도시조성에 참여했던 김의식씨(국토개발연구원)는 "종교부지는 각 종교의 차별없이 균등하게 불하받을 수 있다"며 "교계가 미래불교를 위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신도시 포교는 결코 요원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교회나 사찰의 수량으로 교세를 평가할 수는 없다. 사찰 1곳이 교회 수십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부지불하는 신도시포교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교부지를 받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의욕과 종단 사암 등 연합단위의 정책·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중근 기자〉

◇지난 2일 일산에 들어설 매머드 포교당 여래사가 기공식을 가졌다.

법주사 토지임대 불자들에만

내년부터 호법차원

법주사(주지 혜광)가 소유토지인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지역 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한 '불교 성역화지역'의 토지임대를 불자들에게만 하기로 결정하고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이미 다른 관광사찰들에서 명문화 내지는 관례로 시행되고 있다.

법주사는 최근 종무회의 결의에 따라 97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고지와 각서를 받고 있다며, 종교탄압이라는 일부 타종교인들의 반발이 있으나 호법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주사의 이번 결정은 충청북도가 불교취약지역으로 특히 법주사 사하촌을 비롯한 속리산 일대 주민의 약 2/3가 이교도로 파악되고 있어 포교에 위기의식을 갖게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사찰소유의 토지는 전법활동에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불자들에게 임대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부산의료원 법당 신축 자금난으로 불사 차질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신축공사가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 원장)을 비롯 이장수 同의료원 불자회 회장과 간병봉사단의 발원으로 시작된 법당 건립 불사가 공사비 3천여만원이 없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관계자들이 십시일반 불사금을 내고, 모금도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부산대 법당에 이어 부산에서 두번째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의료원 법당은 15평의 규모로 건립된다. 법당은 불자들의 기도도량으로써 뿐만 아니라 부산시립의료원 이용불자들의 불교시청각교육실과 자원봉사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효종스님은 "병마와 싸우는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효종스님과 간병봉사단은 92년부터 부산시립의료원에 불서(佛書)를 비치하고, 매주 1회 행려병동 환자들의 목욕, 이발, 경전읽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문체부장관 성가곡 CD선물 '물의'

김한규 총무처장관의 "주일성수를 위해 공무원시험을 평일에 실시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종교행정 주무부서인 문체부장관이 장관실 내방객들에게 특정종교 성가곡 음반을 선물로 배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영수문체부장관은 지난 연말부터 장관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정명훈 정명화남매의 연주곡 CD와 함께 소프라노 신영옥씨의 성가곡CD '아베 마리아'가 한묶음으로 포장된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신영옥씨의 '아베 마리아'에는 '놀라우신 주의 은총' '자비하신 주 예수님' 등 수록된 16곡 모두가 기독교 성악곡이다.

문체부장관 비서실 최헌호 비서관은 "세계적인 한국성악가의 노래라는 점에서 손님들에게 선물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당장 배포를 중단하겠으며,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대장경판전 지붕보수

빠르면 4월 실시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대장경판전(국보 제52호) 기와보수가 빠르면 4월중 실시될 전망이다.

해인사는 동·서사간전 지붕과 서까래, 법보전 기와에 대한 보수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이달중으로 보수와 관련한 설계 및 세부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또 3월중 이와 관련해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를 거친 4월중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장경판전은 수다라전, 법보전, 동·서사간전 4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한 현대식 기와로 교체시 오히려 판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다.

두 김씨 퇴진 주장
월주스님 공개석상 발언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이 김대중 김종필 두 김씨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월주스님은 지난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현 시국에 관한 사회각계인사 간담회'에 참석, 한보사건과 이에따른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두 김씨도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 너무 집요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뜻이 생긴다"며 두 김씨의 퇴진을 공개석상에서 주장했다.

월주스님은 이에앞서 지난 1월 22일 조계종총무원을 예방한 이한동의원과의 대화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 정권을 획득했거나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은 후퇴시켜야 하며, 정당도 보스를 중심으로 한 붕당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또 종교와 정치의 역할과 영역은 따로 있다고 전제, "종단에서는 특정정파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립을 선언하고 "그러나 선거를 왜곡되게 끌고간다면 바른 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BBS '2월 개국' 또 연기

시설공사 답보상태…경영권 다툼도 원인

당초 2월말로 예정됐던 불교청주방송 개국이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있다.

불교청주방송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험방송도 실시하는 등 2월 개국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국을 코앞에 두고 자금난에 봉착, 스튜디오 방음공사와 시설설비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데다 일부신입사원들의 퇴직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방송 지방국의 운영은 1사1법인을 원칙으로 '지방국 설립 및 운영규칙'에 따르게 되어있으나 불교청주방송의 건물무상임대와 자금지원을 약속한 정진택회장(충청매일신문)이 이를 무시하고 자금난을 문제삼아 인사권과 운영권 등 방송국 경영을 둘러싼 주도권을 잡으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회장측은 지난해 약속한 건물무상임대 등을 번복, 방송국 개국과 관련된 자금 7억원을 불교청주방송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혜광)에서 부담한다면 방송국개국작업의 일선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음을 지난 12일 불교청주방송추진위에 구두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은자 기자〉

불교방송 회계 재감사
경리사고수습대책위

불교방송 경리사고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가 이영준PD(편성제작국)와 박원식기자(보도국)를 수습위 실무간사로 영입하고 지난 12일부터 회계감사와 세무감사등 본격적인 재감사 작업에 착수했다.

구정연휴로 인한 공백으로 사건해결의 진전 속도가 한층 느슨해진 가운데 베트남에 도피중인 피의자 김선도씨(전 경리부차장)는 7일 비자만료시한이 지난 현재까지 베트남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불교방송노동조합은 지난 5일과 13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노조는 사내 대출보증인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강구해 줄 것도 촉구했다. 피해액은 이중지급과 퇴사자들을 제외하고 총 2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김선도와 김현안의 가족을 방문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음 의심치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함은 자기가 자기를 두려워함이니 그렇게되면 결코 부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참된 근본은 곧 부처라 나는 그 뜻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하인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나아가라.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될 것이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퇴행성 관절염 전문
좌골 신경통 (3회끝)
張三洙 합장
543/7306 711/4370

포교원 안내
▶ 위 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 평 수 : 36평
■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사찰(교환)운영하실분
위 치 : 경남 통영
연락처 : 0557)41-5516 015-516-7778

탈종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명 : 원효암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518번지
주 지 : 양재훈(천광)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년 2월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의성군
■법당 1동, 산신각1동, 미륵님, 요사채2동(현대식), 사용평수 :1300평
■가격 : 1억2천(가격절충가능)
연락처 : 0576)862-0674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경력 사원모집
삼보에 귀의 하오며 함께 일하며 경전공부를 하실 도반을 모십니다.
■연령 : 40세이상 (정년퇴직자 및 명퇴자 환영)
■대상 : 남·여
연락처 : 739-8074~5 나찬귀합장

사 찰 안 내
▶ 위 치 : 장호원(발전요충지)
▶ 대 지 : 437평 ▶ 법당 : 27평
▶ 사무실 : 15평 ▶ 요사채 : 42평(방15개)
▶ 매매가 : 3억4천(급매)
▶ 전 망 : 평당 150만 이상의 요충지
※ 부동산 사전(직접상담)
☎ 0336)643-9051 · 0331)224-4995

포교당 안내(하실분)
●위치 : 도봉구 수유리 32평 4층
●보증금 : 3천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 1천5백만원
※ 상담후 절충가능
전 화 : 902-9178 3492-4678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초 전철역 부근
▶ 평 수 : 60평·보증금 : 3000만원
※가격절충가
연락처 : 02)523-0241 523-0243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스님 수필·시·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불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포교당 안내
▶ 위 치 : 부천시 중동 신도시 입구
▶ 전 세 : 3천3백만원
▶ 평 수 : 25평
연락처 : 032)656-7523

포교당 안내
▶ 50평·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기타절충
연락처 : 02)248-0479

포교당 하실분
▶ 위 치 : 의정부 신곡1동
▶ 평 수 : 35평 2층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연락처 : 0351)40-9923